

지구촌 양계뉴스

..... 브라질 지난해 닭고기 수출 사상 최대치 기록

미국 달러화의 가치하락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파문의 영향으로 지난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현지 언론이 2월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닭고기수출협회(Abef)는 전날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닭고기 수출액이 2004년보다 35% 증가한 35억900만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량이 284만6천톤으로 2004년보다 15%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AI로 인해 닭고기 수출가격이 인상됐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리카르도 곤살베스 Abef 회장은 “지난해 수출실적이 새로운 기록을 달성함에 따라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닭고기 수출국 지위를 더욱 확실하게 굳혔다”면서 “향후 브라질 정부의 AI 방역대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면 이 같은 추세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산 닭고기의 대(對) 아시아 시장 수출

규모는 75만7천톤, 10억1천200만달러를 기록해 2004년보다 수출액이 34%가 성장하면서 아시아권이 주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은 40만5천톤을 수입했으며, 수입액은 6억9천300만달러에 달했다.

Abef는 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해 올해 닭고기 수출 규모가 최소한 5~10%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상파울루=연합뉴스

..... 미 국 양계협회, 조류인플루엔자 전수검사 실시

일부 양계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닭고기의 안전성을 확인시키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미국양계협회(NCC)는 밝혔다.

2005년 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닭고기 중 90%(약 100억수)를 생산하던 그 업체들은 검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양계협회(NCC)는 전했다.

NCC의 리차드 롱 회장은 “우리는 단지 닭고기 식품 안전성을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고자 전수검사를 계획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시아 및 유럽에서 수백만수를 감염시키고, 7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닭고기 소비량은 꾸준한 편이다. 미국인 1인당 평균 닭고기 소비량은 2005년에 85파운드(약 39kg)였으며, 2004년에는 84파운드(약 38kg)를 기록했다.

미 농무성 산하 농업경제국의 데이비드 하베이 전문가는 “최근 몇 달 동안 닭고기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닭고기 가격이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NCC측은 어떤 회사들이 조류인플루엔자 전수검사 계획에 동참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롱 회장은 큰 기업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양계산업의 대기업들은 Tyson Foods社, Perdue Farms社, Pilgrim’s Pride社가 있다.

- Poultrysite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 분석

미국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 코드를 분석하여 H5N1 균주가 위험한 이유를 캐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St. Jude

어린이 연구병원의 로버트 웹스텝가사는 사이언스지에 300종 이상의 AI 바이러스의 큰 유전자 분석을 완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196종의 유전자와 160개의 완전한 게놈(genome)을 분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AP

..... E U 터키발 AI 차단 감시시스템 강화

유럽연합(EU)은 지난 1월 11일 터키에서 확산중인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역내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조류와 가금류에 대한 감시 기간을 연장하고 AI 검사 예산을 늘리는 등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브뤼셀에서 수의학 전문가 회의를 열고 당초 1월말까지 철새의 이동경로에 따라 습지와 연못 등지에서 야생조류와 가금류와의 접촉여부 등을 주시하라고 회원국들에 요구했던 감시 기간을 오는 12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AI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회원국들의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 유로를 추가로 배정했다.

집행위는 25개 회원국들로부터 2월 7일까지 구체적인 AI 감시 프로그램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회원국별 검사예산 지원액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후 EU 전체에서 야생조류 2

만5천마리에 대해 AI 관련 검사를 실시했다.

EU 내 야생조류 및 가금류 조직 샘플 검사에 선 지난 2003년이래 78명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H5N1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EU 25개 회원국 방역전문가들은 지난 1월 12일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갖고 AI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터키 인접국들을 비롯해 유럽 각국도 AI 차단을 위한 비상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그루지야는 AI의 자국내 진입을 막기 위해 터키와의 모든 국경 검문소에 대해 소독을 실시했다.

독일의 호르스트 제호퍼 환경 장관은 가금류의 육내 수용 지시가 철새의 이동시기인 3월보다 빨리 내려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프란세스코 스토라체 이탈리아 보건 장관은 AI 위기 전담 테스크 포스팀을 가동할 계획이며, 스위스는 터키 인접국들로부터 깃털의 수입을 금지했다.

스웨덴은 터키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체코 보건당국은 AI 백신인 타미플루 170만명분을 확보했다.

이밖에 에스토니아는 AI 감염 의혹이 있는 모든 가금류 농장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라트비아도 지난해부터 취해온 예방조치를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브뤼셀=연합뉴스

‘인도적 사육’ 입증 ‘복지 꼬리표’ 추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유럽에 서는 모든 축산 제품에 ‘이 제품을 생산한 가축은 인도주의적인 환경에서 사육되고 도축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가축 복지 확인 꼬리표’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 축산농가들은 달걀, 우유, 치즈나 닭·소·돼지고기 등을 팔 때 제품에 복지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축산농가들은 가축을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사료를 제공하며 키워야 꼬리표를 달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덧붙여 가축을 도축할 때는 잔인한 방법을 쓰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EU 각국 기업들은 화장품, 약품, 식품 등을 만들 때 부작용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해온 동물 실험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운송업자들은 가축을 장거리 이송할 때 가축들이 불편이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집행위는 곧 복지 꼬리표 제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안을 지난 1월 23일 EU 농업장관 회의에 회부해 확정, 2006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집행위는 “최근 수 십년 동안 가축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축산업자들과 축산품 도소매상들은 가축 복지 문제가 제품 이미지와 품질 제고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집행위가 EU 각국 주민 4만명



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축 복지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답을 얻었다. 응답자 가운데 80%가 가축 복지 꼬리표 부착에 찬성했다.

- AW

독 일
가금류 방목 금지 재시행

독일 정부는 지난 1월 11일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류 방목 금지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스트 제호퍼 농업장관은 지난해 실시했던 가금류 방목 금지 조치를 올 봄에 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지난해 10월 유럽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독일 전역에 가금류 방목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제호퍼 장관은 또 국경을 통해 AI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류와 가금류 가공품의 반입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국경 통제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농업부는 가금류 방목 금지 결정을 이달 말까지 내릴 예정이다. 가금류 방목 금지 조치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터키에서 AI가 확산됨에 따라 자국민에게 터키 여행을 자제하고 특히 터키에서 가금류 접촉을 피할 것을 요청했다.

독일 외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터키 내 AI 위험지역에 대한 여행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 베를린=연합뉴스

스 위 스
터키 인접 6개국 가금류 금수조치

스위스 연방검역국(OVF)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고 있는 터키의 인접국들인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으로부터 미처리된 깃털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지난 1월 9일 밝혔다.

스위스가 이같은 조치는 유럽연합(EU) 집행 위원회가 동일한 조치를 취한 뒤 하루만에 이뤄진 것이다.

스위스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EU와 마찬가지로 터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가금류의 고기와 알, 깃털 등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한 바 있다.

터키에선 AI 감염자가 지난주말 5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감염 지역이 동부에서 서부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럽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 제네바=연합뉴스